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

2017. 7

김동섭¹, 이예일², 손영희³, 전제훈⁴

* 이 자료는 Meir Kohn의 "Early Deposit Banking"(1999)과 Stephen Quinn and William Roberds의 "The Bank of Amsterdam through the Lens of Monetary Competition"(2012) 등 지급결제 측면에서 초기 은행과 공공은행 및 중앙은행의 출현 과정을 연구한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 결제연구팀 과 장(Tel : 02-750-6640, E-mail : kimds@bok.or.kr)
- 결제연구팀 조사역(Tel : 02-750-6622, E-mail : yeil.lee@bok.or.kr)
- 결제연구팀 조사역(Tel : 02-750-6636, E-mail : sonyh@bok.or.kr)
- 결제연구팀 조사역(Tel : 02-750-6547, E-mail : jjh4160@bok.or.kr)

◆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본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박상규 결제연구팀장님, 차현진 금융결제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목 차

<요 약>

I. 서 론	1
II. 근대적 은행업의 출현과 발전	2
III. 공공은행의 등장	10
IV. 중앙은행의 태동	14
V. 결론 및 시사점	24

요 약

I 서 론

- 일반적으로 1661년 유럽에서 최초로 은행권(banknote)을 발행한 **스톡홀름은행**(리스뱅크의 전신)과 1694년 정부 대출을 위해 설립된 **영란은행**이 **최고(最古)의 중앙은행**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중앙은행의 역사는 그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감
 - 1587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16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공익적 성격을 갖춘 은행(public bank)**을 설립하고 **지급결제기능에 특화**되도록 운영함으로써 **초기 중앙은행의 형태**가 출현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서 중앙은행사에서 자주 제외됨
- 12세기 이후 유럽에서 **은행 기반의 근대적인 지급결제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초기 민간은행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지역에서 **공공은행 및 초기 중앙은행**이 도입된 과정을 조사하고자 함

II 근대적 은행업의 출현과 발전

1 배 경

- 근대적 은행업은 **12세기 이후 무역과 상업**을 중심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교환경제**를 배경으로 출현
 - 무역을 통해 번창한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국가**들과 **북부유럽 항구 도시**들이 당시 성장을 주도

- 프랑스 샹파뉴 정기시장(Champagne Fair) 등 여러 곳에서 주기적으로 개최된 장터를 무대로 상거래가 본격화되었으며 원거리 무역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상인계급이 등장하면서 환전, 송금 등 금융서비스도 나타나기 시작
- 당시 유럽에서는 주화변조(debasement) 성행, 주화유통의 무질서와 만성적인 주화 부족으로 인해 상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효율이 상당
 -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통용되고 거액의 무역 대금 결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화를 이용한 결제의 불편함이 가중
- 근대적 은행업 출현 이전부터 만성적인 주화 부족과 주화 결제의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상거래는 신용거래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발행된 증서(어음)가 지급수단으로 활용

2 근대적 은행업의 등장 및 주요 기능

- 근대적 은행업은 12~13세기 무렵 이탈리아 등 주요 상업도시에서 활동하던 환전업자들이 주화를 예치받고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등장
 - 환전업자 또는 초기 은행은 계좌를 보유한 예금주들에게 장부상 소유권 이전(book transfer) 방식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통해 주화를 이용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대금결제가 가능
 - 환전업자 또는 초기 은행이 공동의 지급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이방인 간에도 제3자 채무승계를 통한 상계 결제가 용이해지는 등 거래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

□ 고대부터 내려온 대부업자(usurer)들과 달리 환전업자 또는 초기 은행들은 대출을 본업이 아닌 예금수취 및 지급결제의 부수업무로 취급한 것이 특징

— 은행들이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수취한 고객 예금을 대출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금융중개기관으로 진화

3 초기 은행업의 문제점 및 대응

□ 환전업자가 근대적 은행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지급결제의 효율성이 개선되었으나 수익을 위해 예금을 대출로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은행 파산이 빈발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

— 예금을 대출 및 투자로 운용하면서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데다 당시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은행의 부실화와 파산 위험이 증대

○ 당시 은행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았으며 고리대금업 금지의 영향으로 고위험사업 지분투자가 성행

— 은행 규모가 영세하여 투자대상사업(아프리카 무역 등)의 고위험성에 비해 위험분산(diversification)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두 건의 대출이 부실화되는 경우에도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

○ 특히 15세기 후반 금괴기근(great bullion famine) 현상으로 장기간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은행 파산이 확산

□ 베네치아 등 은행업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들의 부실화와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은행감독기관 설립 등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

Ⅲ

공공은행의 등장

- 초기 환전업에서 발전한 **민간 은행들 위주의 지급결제시스템의 대안**으로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은행을 설립**하기 시작
 - 최초의 **공공은행**은 **140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설립된 공공은행 (Taula de Canvi)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제노바, 베네치아,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등 유럽 전역에서 공공은행들이 설립
- 1587년 설립된 **베네치아의 리알토은행(Banco di Rialto)**은 예금을 대출하지 않고 전액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면서 **순수 지급결제기능**만을 수행하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이후 **암스테르담은행과 영란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침

Ⅳ

중앙은행의 태동

1 배경

- 15세기 이후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 등으로 **대항해시대**가 시작되고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면서 대양무역에 강점을 가진 **네덜란드가 유럽 물류 및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
 - 네덜란드는 **발트해, 북해, 지중해 등과 연결되는 교통요충지**에 위치하여 다양한 국가의 상선이 모이는 유럽화물의 집산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뛰어난 조선, 항해 기술 등을 바탕으로 발트해 연안 무역을 주도

□ 유럽내 주화변조 및 유통질서 혼란 등이 여전한 가운데 암스테르담이 무역,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여러 국가의 상인들이 유입되어 **통용되는 주화의 종류가 더욱 많아지는 등 혼란이 가중**

— 네덜란드 지역에서 환전업자 및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던 민간 금융업자(cashier)들은 주화변조를 묵인하고 주조차익을 나누어 가지는 등 주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일조

□ 이같은 화폐시스템의 혼란은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암스테르담의 지위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

— 당시 무역거래의 주된 결제수단인 **환어음의 청산을 원활화**하기 위해 화폐 및 은행예금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했음

2 암스테르담은행 설립과 발전과정

(1) 암스테르담은행의 설립 및 주요 업무

□ **암스테르담 시의회**는 주화변조 심화 등에 따른 화폐제도의 신인도 저하를 해결하기 위하여 **1609년 지급결제업무에 독점권을 갖는 암스테르담은행을 설립**

— 분권적 성향이 강했던 네덜란드에서 특정 은행에 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당시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데 기인

○ 전쟁수행능력 확충을 위해서 암스테르담은행을 통해 주화질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제 무역 및 금융 중심지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강한 경제력을 유지**할 필요

- 암스테르담은행은 베네치아 리알토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금지** 하고 **예금 수취 및 지급결제기능 제공**에 중점을 두고 운영
- 암스테르담은행은 **예금 수취, 결제서비스 제공, 공개시장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
 - [예금] 암스테르담은행은 시중에 **통용되는 모든 주화를 예치받고, 인출 요구시에는** 주화변조가 되지 않은 **양질의 주화만을 지급**
 - 1621년 민간 금융업자들을 허가하면서 이들이 예금을 수취하며 받은 주화를 24시간 내에 암스테르담은행에 예치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전액지급준비제도 (100% money)」와 유사
 - [결제서비스] 암스테르담은행은 상인, 민간 금융업자 등의 **예금계좌를 기반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
 - 암스테르담은행 설립 이후 일정금액(600 플로린) 이상의 **거액 환어음결제**는 동 은행예금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의 중심역할을 수행
 - [공개시장조작] 암스테르담은행은 자체 회계단위인 **뱅크플로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화 및 은괴를 매매**

(2) 암스테르담은행의 주요 영향

- **암스테르담은행 예금이 주된 거액결제수단으로 정착**되면서 암스테르담은행이 정한 화폐단위(뱅크플로린)가 **보편적인 화폐단위**로 정착

- 발행주체와 함량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플로린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에서 암스테르담은행은 동 주화들을 예치 받은 뒤 「뱅크플로린」이라는 통일된 화폐단위로 기록
- 뱅크플로린은 쉽게 양질의 주화로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화에 비해 통상 5% 정도 더 높은 가치(agio)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

□ 1640년대부터 **암스테르담은행 예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

- 암스테르담은행의 예금을 주화로 인출할 때 1.5% 내외의 수수료가 부과됨에 따라 예금자들은 **직접 주화 인출을 요구하기보다 시장에서 예금을 매매**
 - 예금자가 민간 금융업자 앞으로 예금을 계좌이체하면, 금융업자가 예금자에게 이에 상당하는 주화를 지급

□ 1683년부터는 예금주도 **주화인출권(receipt)이 있어야 주화인출이 가능** 해짐에 따라 동 인출권 시장이 형성

- 주화인출권의 제시가 예금을 주화로 인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

□ **인출권 없이는 주화 요구가 불가능**했지만 계좌이체방식의 **거액 지급결제는 여전히 가능**했다는 점에서 암스테르담예금은 **불태환 지급수단** 즉, **법정화폐의 성격을 갖게 됨**

- 이로써 암스테르담은행은 직접 발권기능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불태환 지급수단을 관리**하고 **거액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면에서 **오늘날의 중앙은행과 매우 유사**한 위상을 갖추

3 암스테르담은행의 쇠퇴 및 영향

- 1760년 이후 암스테르담은행 지급결제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였던 **역내 상업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네덜란드 금융시스템 및 암스테르담은행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
 - 특히 제4차 영국-네덜란드 전쟁(1780-1784) 패전 이후 암스테르담은행의 쇠락이 가속화
 - 암스테르담은행은 **전쟁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동인도회사 등 주요 회사, 시정부 등 지방정부에 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이 크게 악화
 - 자산 부실화, 주화인출 요구 증가로 준비자산이 급감함에 따라 **시장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여 아지오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결국 암스테르담은행은 **1819년 파산**
- 암스테르담은행의 실패와 함께 **금융 중심지로서 네덜란드의 지위도 쇠퇴**하였으나 암스테르담은행은 이후 **영란은행 등 보다 현대화된 중앙은행의 형성**과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 상인들의 **거액자금 결제**를 중심으로 **계좌기반(ledger-money)**으로 운영된 암스테르담은행과 달리 영란은행 등은 **지폐 형태의 은행권(bearer banknote)**을 발행
 - 영국은 **암스테르담은행을 참고하여 1694년 영란은행을 설립**하였으며 **런던 주변지역에서 영업독점권을 가진 은행**으로 성장하면서 **신중한 자금운용 등을 통해 높은 신뢰를 구축**

V**결론 및 시사점**

- 근대적 은행업은 **환전업자들이 주화를 예치받고 계좌기반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출현**
 - 고대부터 활동해 온 대부업자(usurer)들과 달리 환전업자 또는 초기 은행들은 예금을 통해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출 및 투자도 부수업무로 파생**되어 취급하기 시작
- 초기 중앙은행은 민간은행들이 예금을 대출에 활용하면서 은행 파산 및 지급결제시스템 불안이 초래되었던 경험을 교훈 삼아 **지급결제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예금을 대출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공공은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해 설립
 -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는 대출 및 투자실패로 민간은행의 파산이 이어짐에 따라 지급결제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은행인 리알토은행(Banco di Rialto)을 설립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암스테르담은행을 설립하여 화폐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일정 금액 이상의 결제를 동 은행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의무화
- 결론적으로 중앙은행 제도는 중세 이후 유럽에서 근대적인 시장경제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금융 및 지급결제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함
 - 현존하는 최고(最古) 은행중 하나인 영란은행은 이윤을 추구하고 개인이 소유했다는 점에서 암스테르담은행에 비해 일반 상업은행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건전한 자산 운영, 법정화폐 발행 권한 획득 등을 통해 오늘날 중앙은행의 효시로 살아남게 됨

I

서론

- 중앙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감시 및 발전 도모** 또한 중앙은행의 핵심적인 책무라는 사실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음

- 일반적으로 1661년 유럽에서 최초로 은행권(banknote)을 발행한 **스톡홀름은행**(릭스뱅크의 전신)과 1694년 정부 대출을 위해 설립된 **영란은행**이 **최고(最古)의 중앙은행**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중앙은행의 역사는 그 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감
 - 1587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16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공익적 성격을 갖춘 은행(public bank)**을 설립하고 **지급결제기능에 특화**되도록 운영함으로써 **초기 중앙은행의 형태가 출현**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서 중앙은행사에서 자주 제외됨

- 이 보고서에서는 12세기 이후 유럽에서 **은행 기반의 근대적인 지급결제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초기 민간은행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지역에서 **공공은행 및 초기 중앙은행**이 도입된 과정을 조사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 감시자, 지원자로서 중앙은행 책무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

II

근대적 은행업의 출현과 발전

1 배경

□ 근대적 은행업은 12세기 이후 무역과 상업을 중심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교환경제를 배경으로 출현

- 지중해를 통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중세 초기 물물교환 위주의 농업경제로 후퇴하였던 경제시스템이 화폐경제로 회귀
- 무역을 통해 번창한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국가들과 북부유럽 항구도시들이 당시 경제성장을 주도
 - 이탈리아의 제노바, 베네치아, 피렌체 등 도시국가는 지중해를 통한 동방무역(Levant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상업의 중심으로 부상
 - Levant는 중동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지역을 뜻하는 용어로 레반트 무역은 유럽과 아시아의 중개무역을 의미
 - 독일 지역은 한자(Hansa)를 결성하여 북해, 발트해 연안의 무역을 주도하였으며 네덜란드 지역도 선박, 조선업과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성장
- 상파뉴 정기시장(Champagne Fair)[■] 등 주요 장터를 무대로 상거래가 본격화되고 원거리 무역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상인계급이 등장하면서 환전, 송금 등 초보적인 금융서비스도 나타나기 시작
 - 상파뉴 정기시장(Champagne Fair)은 12~14세기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 개최된 대표적인 시장으로 상인, 환전업자 및 예금은행이 참여하였으며 계좌를 통한 지급결제 서비스도 활용

□ 서양의 주화체계는 금, 은 등 주화의 소재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당시 유럽에서는 ① 주화제도의 혼란과 ② 만성적인 주화 부족으로 인해 상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효율성이 상당

① 주화제도의 혼란

— 발행자가 의도적으로 주화의 귀금속 함량을 낮추는 등 화폐의 물리적 가치를 낮추는 주화변조(debasement)가 만연

○ 당시 유럽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발행된 주화가 혼재되어 통용되고 있었는데 주조소를 운영하는 영주 등은 주조차의 (seigniorage)을 늘리기 위해 귀금속의 함량을 낮추어 발행

■ 이탈리아의 경우 영주 및 주교가 각자 주조소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중부 토스카나 지역에만 루카(Lucca), 피사(Pisa), 피렌체(Firenze) 등 7개 이상 지역에 주조소가 존재하였으며 비교적 중앙집권이 진행된 영국에서도 주조소가 70개 이상 설립

○ 이용자들도 주화 테두리를 깎아내는 클리핑(clipping)과 가죽부대에 넣고 마찰시켜 금속 가루를 얻는 스웨팅(sweating) 등을 시도

② 만성적인 주화 부족

—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교환의 매개로서 주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데 반해 주화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광산의 추가 발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만성적인 주화 부족 문제가 지속

○ 또한 향신료 수입 등을 위해 아시아 등으로 금, 은 등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상당량의 주화와 금괴, 은접시 등이 가치저장 목적으로 보관되고 있어 거래 목적으로 유통되는 주화가 부족

□ 주화를 통한 결제시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져 상업 및 금융의 발전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

— 거래시마다 주화의 품질을 확인하고 주화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

—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통용되고 거액의 무역대금 결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화를 이용한 결제의 불편함이 가중

○ 외국과의 무역 거래나 익명의 상대방과 거래시 신용이나 물물교환을 통한 결제가 어려워 효율적인 지급수단의 필요성이 증대

□ 따라서 근대적 은행업 출현 이전부터 대부분의 상거래는 비효율적인 주화 결제가 아닌 **신용거래**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발행된 **증서(어음)**가 지급수단으로 활용

— 상인들은 **제3자(다른 상인)에게 받은 어음 등을 승계하면서 지불의무를 수행하는 채무승계 방식(debt assignment)**을 활용

— 다만 신용거래와 채무승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신뢰가 필요**

2 근대적 은행업의 등장 및 주요 기능

□ 근대적 은행업은 12~13세기 무렵 이탈리아 등 주요 상업도시에서 활동하던 **환전업자들이 주화를 예치받고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등장

- 기존 환전업자들은 다양한 화폐의 진위여부 및 가치를 판단하고 타 화폐와 교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축적한 설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
- 특히 **상파뉴 등 정기시장**과 이탈리아의 **제노바, 베네치아, 피렌체 등 상업도시**에서 다수의 은행이 등장
 - 일부 지역에서는 **숙박업자**(브뤼헤 등), **금세공업자**(런던 등) 등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예금수취 및 지급결제기능)

- 환전업자 또는 초기 은행은 계좌를 보유한 예금주들에게 **장부상 소유권 이전(book transfer)** 방식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통해 주화를 이용하지 않고 효율적인 대금결제가 가능
 - 초기 은행이 공동의 지급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이방인 간에도 **제3자 채무승계를 통한 상계 결제**가 용이해지는 등 거래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
 - 초기 은행들은 당좌계좌(current account)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계좌이체 등 지급결제서비스를 **별도의 수수료 없이 처리함으로써** 편익을 제공
- 당시 예금을 통한 지급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구두요청으로 처리됨**
 - 서면을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였으나 지급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실제 은행을 방문한 경우에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

— 이를 위해 대부분의 은행은 상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변화
가나 항구, 정기시장 등에 위치[■]

- 베네치아의 은행들은 시장 변화가였던 리알토(Rialto) 다리 부근에 주로
모여 있었으며 상파뉴 등 정기시장이 열리면 은행들이 직접 이동하여
창구를 개설

□ 환전업자 또는 초기 은행들은 **규모가 영세**하였으며 **은행간 결제시
스템도 미성숙한 상태**

— 일반적으로 은행은 5~6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
분의 은행들이 100명부터 1,000명 내외의 고객을 확보하고 예금
을 기반으로 지역내 지급결제 서비스 등을 주로 취급

- 다만 14세기 이후 큰 부를 축적한 이탈리아의 바르디(Bardi), 페
루찌(Peruzzi), 메디치(Medici)와 독일의 후거(Fuggers) 등 거상들은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무역업과 금융업을 함
께 영위하는 **머천트뱅크(merchant bank)**로 발전

— 은행들은 **상호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청산**하면
서 은행간 결제를 처리[■]하였으며 상인들은 원활한 지급결제서비
스 이용을 위해 여러 은행에 계좌를 보유

- A은행의 고객이 B은행의 고객에게 계좌이체를 원하는 경우 A은행 직원
이 B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B은행에 개설해둔 A은행 명의의 계좌에서 B
은행의 고객 계좌로 이체를 지시(오늘날의 Corres Bank 업무와 유사)

(대 출)

□ 고대로부터 내려온 대부업자(usurer)들과 달리 환전업자 또는 초기
은행들의 **대출은 예금수취 및 지급결제의 부수업무**로 시작

- 중세 고리대금업 금지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은행업 출현 이전부터 대부업은 존재하였으나 은행들이 수취한 예금을 대출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금융중개기관으로 진화
- 예금자들은 지급결제에 활용하기 위해 계좌잔액을 상당 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안정적인 대출재원으로 활용 가능
 - 당시 예금 중에는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지급결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당좌계좌(current account)** 외에 은행이 대출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부계좌[■](conditioned account)**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 조건부계좌는 현재의 에스크로 계좌와 같이 인출에 제한(자녀의 성년 및 결혼, 부동산 거래 등)이 있어 지급수단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대신 은행이 해당 자금을 대출 등에 활용하여 얻은 이자수익 일부를 예금자에 지급
- 환전업자 또는 초기 은행들은 계좌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초과 인출을 허용하는 **당좌대월(overdraft)** 방식으로 **상업대출**을 제공하였으며 **정부 및 귀족 등에 대한 대출, 원정무역 사업에 지분투자** 등도 실시
 - 당좌대월은 당시의 주된 상업대출 방식으로 활용되었으며 결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상인들의 유동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도 수행

3 초기 은행업의 문제점 및 대응

- 환전업자가 근대적 은행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지급결제의 효율성이 개선되었으나 **수익을 위해 예금을 대출로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은행 파산이 빈발**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

- 은행이 수취한 예금을 대출이나 투자로 운용하는 경우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특히 당시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은행의 부실화와 파산 위험이 증대
 - 당시 은행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았으며** 고리대금업 금지의 영향으로 **고위험사업 지분투자가 성행**
 - 왕족, 귀족, 시정부 등에 대한 대출 뿐 아니라 국채 인수, 금괴 등 원자재 투기, 어음할인, 지급보증 서비스 등 특별한 제약 없이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였으나 위험성이 높음
 - 당시 대출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로 취급되었던 데 반해 당시 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원정 무역사업의 경우 수년에 걸쳐 진행
 - **전쟁, 계절적 변동성 등 외생적인 충격이 빈번**하였으나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미비**하였던 점도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으로 작용
 - 당시 유럽에서는 잦은 전쟁으로 상품가격이 급변동하였기 때문에 무역거래 등에 대한 지분투자의 위험성이 매우 컸으며 특정 시기에 예금인출이 집중되는 경향도 지속²
 - 7~8월 중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상인들은 레반트 무역을 위해 주화를 인출했으며 피렌체에서는 9~11월 중 외곽지역에서 곡물을 구입하기 위해 대규모로 주화를 인출
- **은행 규모가 영세하여 투자대상사업(아프리카 무역 등)의 고위험성에 비해 위험분산(diversification)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두 건의 대출이 부실화되는 경우에도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

- 은행들은 30% 내외의 지급준비금 보유, 은행간 긴급유동성 공급(credit line) 등 위기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었으나 투자실패 등으로 주화인출 요구 증가시에 고의로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주화인출을 일시 중지**하는 행태가 만연

□ 유럽 전역에서 **은행의 유동성 위기, 파산** 등의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

— 특히 15세기 후반 **금괴기근(great bullion famine)** 현상[■]으로 장기간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은행 파산이 확산

- 중세 유럽에서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향신료, 보석 등의 수입이 활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금, 은 등 귀금속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었는데 동현상이 1492년 콜럼버스의 미 대륙 발견의 배경으로 작용

— 베네치아에서는 전쟁 등으로 인해 1499년부터 1500년까지 주요 은행이 파산하고 다수 은행들이 대규모 유동성 위기를 경험

- 오스만제국, 피렌체 등과의 전쟁에 따른 과도한 전비지출로 주요 4개 은행중 2개가 파산

□ 베네치아 등 금융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들의 연이은 부실화 및 파산과 이에 따른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은행감독기관 설립** 등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

— 환전업은 발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었는데 피렌체는 은행가, 환전업자들의 동업조합이 감독업무를 수행했으나 동업조합이 없는 베네치아에서는 정부가 감독을 수행

- 베네치아는 은행설립 규제(설립시 시의회 인준 및 담보 제공)를 강화하는 한편 1524년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었던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은행감독기관을 설립하고 건전성 규제[▪]를 실시
 - 은행들의 과도한 지분투자 방식의 자금 운용에 따른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지분투자 한도를 은행가 개인 자산의 1.5배 이내로 제한 등

Ⅲ 공공은행의 등장

1 개요

- 초기 환전업에서 발전한 **민간은행들 위주의 지급결제시스템의 대안**으로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은행을 설립**하기 시작
 - 민간은행은 투자 실패, 대출 부실화 등에 따른 파산 우려가 커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
- **최초의 공공은행은 140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설립된 공공은행 (Taula de Canvi)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제노바, 베네치아,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등 유럽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공공은행들이 설립
 - 초기 공공은행들은 설립목적과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주화와 민간 은행예금을 대체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장부 방식의 지급수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짐
 - <참고> 초기 공공은행 및 중앙은행 비교 참조
 - 공공은행은 정부가 직접 설립·운영하기도 하였으나 **민간 소유인 경우에도 특정 지급결제업무를 독점 수행하거나 예금에 압류를 금지**하는 등 법률적 특혜를 부여하여 여타 민간 은행과 차별화

2 베네치아의 리알토은행

- 1587년 베네치아는 지급결제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은행을 설립
 - 1500년대 이후 베네치아에서는 연이은 금융위기 등으로 민간 은행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소수의 은행만 남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은행예금의 가치는 주화에 비해 20% 정도 낮게 평가
 - 1584년 마지막 민간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시 의회는 공공은행인 리알토은행(Banco di Rialto)을 설립
 - 리알토은행은 3년 단위로 민간 은행가를 선정하여 운영
 - 당시 베네치아에서는 관행적으로 공직을 경매, 면허 등의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
 - 1593년부터 모든 환어음결제를 동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청산하도록 의무화
 - 리알토은행 설립 이후 오랫동안 민간은행이 설립되지 않아 사실상 독점 은행으로 운영
- 리알토은행은 예금을 통해 계좌기반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스톡홀름은행이나 영란은행과 달리 지폐 형태의 은행권을 발행하지는 않았음
 - 일상적인 소액 상거래 등에는 주화를 주로 이용

- 리알토은행은 설립 이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1619년 또다른 공공은행인 **지로은행(Banco del Giro)**이 설립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잃고 1638년 폐쇄됨**
 - 지로은행은 리알토은행과 달리 **정부 채무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설립되었는데 **장부상 신용제공 방식**으로 대출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연이은 전쟁 등으로 정부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쇠퇴

- 리알토은행은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수취한 예금을 전액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면서 **계좌이체와 주화 예치 및 인출 업무만 수행**하는 순수 지급결제 전문은행(narrow bank)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지급결제 및 중앙은행사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짐
 - 베네치아에 앞서 바르셀로나(Taula de Canvi) 등에서 설립된 공공은행들은 지급결제기능 외에 대출을 통한 정부의 자금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구별

- 16세기 후반 베네치아에서 시작된 순수 지급결제기능 중심의 공공은행 설립은 이후 **암스테르담은행(1609), 영란은행(1694) 설립 등으로 이어지면서 현대적 의미의 중앙은행 초기형태로 발전**하였음

<참고>

초기 공공은행 및 중앙은행 비교

	시기	소유	설립목적		자산			부채			서비스		기타 특권	
			이윤 창출	주화 가치 안정	100% 지급준비금	정부 부채	민간	지폐 발행 (Circ.Paper)	요구불	예금	저축성	국고대리	계좌이체 결제기능 (Giro)	외환결제 (FX clearing)
Barcelona Taula	1401-1853	공공	Y	Y	N	Y	N	Y	Y	Y	Y	Y	Y	Y
독일 지역	1400s-1700s	공공/민간		Y	N	Y	N	Y	Y					
Venice Rialto	1587-1638	민간	N	Y	Y	N	N	Y	Y	Y	Y	Y	Y	Y
Amsterdam	1609-1819	공공	N	Y	Y	Y	N	Y	Y	N	Y	Y	Y	Y
네덜란드 지역	1616-1861	공공	N	Y	N	Y	N	Y	Y	N	Y	Y	Y	Y
Venice Giro	1619-1800	공공		Y	N	Y	N	Y	Y				Y	Y
Stockholm Banco	1657-1664	민간	Y	N	N	?	Y	Y	Y					
England	1694-	민간	Y	N	N	Y	N	Y	Y	Y	Y	N	N	N
Vienna Giro	1703-1705	공공	Y	Y	N	Y	N	Y	Y	Y	Y	Y	Y	Y
France B. Royale	1716-1720	민간	Y	N	N	Y	Y	Y	Y	Y	Y	Y	Y	N

자료 : Roberds, William, and François R. Velde(2016)

IV

중앙은행의 태동

1 배경

(1) 암스테르담 금융시장의 발달

- 15세기 이후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 등으로 **대항해시대**가 시작되고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면서 대양무역에 강점을 가진 **네덜란드**가 **유럽 물류 및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
 - 네덜란드는 **발트해, 북해, 지중해 등과 연결되는 교통요충지**에 위치하여 다양한 국가의 상선이 모이는 유럽화물의 집산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뛰어난 조선, 항해 기술 등을 바탕으로 발트해 연안 무역을 주도
 - 16~17세기 무렵에는 발트해 연안을 통과하던 선박 중 60%[■] 이상이 네덜란드 선박이었음
 - 1497~1660년중 덴마크 세관 기록
 - 네덜란드는 무역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낙농업, 상업용 작물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
 - 경작 가능한 농경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대마, 유채, 담배, 호프, 염료식물 등 면적대비 이익이 큰 상업 작물을 주로 재배
- 당초 유럽의 상업 및 금융의 중심지는 **브뤼헤(Bruges)**와 **안트베르펜(Antwerp)**이었으나 **16세기 이후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하여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이끌게 됨

- 네덜란드 독립전쟁(1568-1648년)으로 안트베르펜의 신교도, 유대인 상인 및 금융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

(2) 화폐 및 금융시스템의 혼란

(주화 유통질서 혼란)

- 무역 및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한 당시 암스테르담에서는 각국의 상인들이 활동하게 됨에 따라 여러 국가의 주화가 유입되어 통용되면서 화폐시스템에 혼란이 가중

- 상이한 화폐단위와 교환비율로 인해 무역 거래 및 결제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황

- 암스테르담 시 정부는 자체 주조소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약 800~1,000종의 타 지역 및 외국 주화가 통용

- 특히 당시에는 주조소 난립[■] 등에 따른 주화변조 문제가 심각하여 주화의 가치와 교환비율에 큰 혼란이 발생

- 17세기경 네덜란드에는 지역 정부가 운영하는 14개의 정부주조소와 40여개의 민간주조소가 경쟁하면서 주조차익을 늘리기 위한 주화변조 행태가 만연

- 남부 네덜란드에서 은함량이 낮은 주화(patagon)가 다량 유입되면서 은함량이 높은 무거운 주화를 녹여 은함량이 낮은 주화로 재주조하는 행태도 빈발

- 당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네덜란드의 정치구조[■]로 인해 주화변조 행태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기가 곤란

- 17세기 네덜란드의 정치구조는 네덜란드공화국과 지방정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대내문제는 각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서 전담

- 지방정부들은 자체 운영하는 주조소의 이익 증대를 위해 주조 법령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는 경향
- 네덜란드는 주화가치 불안정에 대응하여 **주조법령** 등 직접 규제를 통해 **주화의 법령가치를 지정**하였으나 오히려 주화의 시장가치와 법령가치가 괴리되는 부작용이 초래
 - 법령을 통한 인위적인 주화가치의 결정은 은 등 금속함량에 따른 내재가치에 비해 법령가치가 낮은 주화를 녹여 법령가치가 높은 주화를 재주조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

(금융시스템의 혼란)

- 당시 네덜란드의 금융시장은 **민간 금융업자(cashier 또는 kassier)**를 **중심으로 형성**
 - 네덜란드에서 캐셔는 민간 금융업자로서 이탈리아의 환전업자 또는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 특히 민간 금융업자들은 암스테르담이 국제무역 및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당시 무역대금 결제 수단인 **환어음(bills of exchange)**을 **현금화**해주는 기능을 수행
 - 환어음 결제는 어음발행자가 어음인수자(제3자 지급인으로서 은행 등)로 하여금 일정 날짜에 약속된 금액을 지시한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발행하고 약속된 날짜에 이를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당시의 대표적인 무역대금 결제방식
- 당시 **민간 금융업자**들은 지방 주조소와 결탁하여 주화변조를 묵인하고 **금속 함량이 낮은 주화를 유통**시키는 등 주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일조

- 또한 예금을 바탕으로 실시한 대출 및 투자 실패로 파산이 빈발하는 등 금융 및 지급시스템 불안을 야기
 - 이에 따라 네덜란드 당국은 1604년에 민간 금융업자를 전면 불법화하는 조치를 시행
- 주화 유통질서 및 금융시스템의 혼란은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암스테르담의 지위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
- 당시 무역거래의 주된 결제수단이었던 **환어음의 청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화폐 및 은행예금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했음**

2 암스테르담은행 설립과 발전과정

(1) 암스테르담은행의 주요 업무

(암스테르담은행의 설립)

- **암스테르담 시의회**는 주화변조 심화 등에 따른 화폐제도의 신인도 저하를 해결하기 위하여 **1609년 지급결제업무에 독점권을 갖는 암스테르담은행을 설립**
- 분권적 성향이 강했던 네덜란드에서 특정 은행에 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당시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데 기인**
 - 전쟁수행능력 확충을 위해서 암스테르담은행을 통해 주화질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제무역 및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강한 경제력을 유지할 필요**

- 암스테르담은행은 **베네치아 리알토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금지** 하고 **예금수취 및 지급결제기능 제공**에 중점을 두고 운영
 - 시정부는 수시 입점검사를 통해 동 은행의 **예금관리 상태**를 보증하여 **신뢰성을 제고**
 - 암스테르담은행에 대출을 금지한 것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과 같이 예금을 대출로 운용할 경우 대출 부실화에 따른 지급결제 시스템불안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

(주요 업무)

- [예금] 암스테르담은행은 시중에 **통용되는 모든 주화를 예치받고, 인출 요구시에는 주화변조가 되지 않은 양질의 주화만을 지급**
 - 1621년 민간 금융업자들을 허가하면서 이들이 예금을 수취하면서 받은 주화를 24시간 내에 암스테르담은행에 예치할 의무를 부여
 - 이는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전액지급준비제도(100% money)」와 유사
 - 암스테르담은행은 순도가 확인되지 않는 기타 주화(illegal coin)가 예치될 경우 주화의 순도 등을 측정하여 그 가치로 예금 잔액을 기록
 - 외국주화도 예치하거나 국내주화로 환전할 수 있었으며 금괴, 은괴 등도 귀금속함량에 따라 평가하여 기록
- [결제서비스] 암스테르담은행은 상인, 민간 금융업자 등의 **예금계좌를 기반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서비스**를 제공

— 암스테르담은행 설립 이후 일정금액(600 플로린²) 이상의 **거액 환 어음결제**는 **동 은행예금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의무화**

- 플로린(florin)은 유럽의 상당수 도시국가들의 공통된 화폐단위로서 지역마다 가치가 조금씩 달랐음(오늘날의 달러(dollar)와 비슷함)

— 그 결과 암스테르담은행의 예금계좌 수는 인구의 2% 수준인 수 천 개에 불과하였지만 건당 결제금액은 주민 연평균 소득의 열 배를 넘는 수준을 기록

- 암스테르담은행이 네덜란드의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의 중심역할을 수행

□ **[공개시장조작]** 암스테르담은행은 자체 회계단위인 **뱅크플로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화 및 은괴를 매매**

— 17세기 중반 뱅크플로린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가치가 상승하자 암스테르담은행은 주화와 은괴를 매입하고 뱅크플로린의 공급을 확대

— **화폐의 상대가치 변동을 허용**하되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외환시장 개입 또는 공개시장조작과 유사²

- Quinn and Roberds(2006)

(2) 암스테르담은행의 주요 영향

(독자적 화폐단위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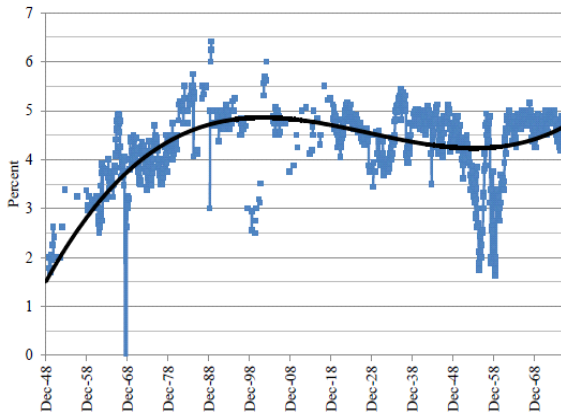
□ 베네치아의 리알토은행과 마찬가지로 암스테르담은행도 지폐 형태의 은행권(banknote)을 발행하지는 않아 네덜란드의 **일상적인 소액 상거래**에는 **주화**가 사용됨

- 그러나 **암스테르담은행 예금이 주된 거액결제수단으로 정착**되면서
암스테르담은행이 정한 화폐단위(뱅크플로린)가 **보편적인 화폐단위**
로 정착
 - 발행주체와 함량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플로린이 시장에서 유통
되는 상황에서 암스테르담은행은 동 주화들을 예치 받은 뒤
「뱅크플로린」이라는 통일된 화폐단위로 기록
- **뱅크플로린은 쉽게 양질의 주화로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
화에 비해 통상 5% 정도 더 높은 가치(agio)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
 - **뱅크플로린은 독자적 화폐단위**이면서 **물질적 형태가 없다는 점**
에서 오늘날의 **가상통화와 유사**

(불대환화폐의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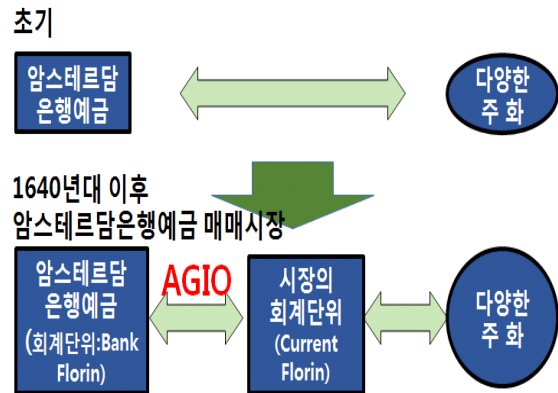
- 1640년대부터 **암스테르담은행 예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
 - 암스테르담은행의 예금을 주화로 인출할 때 1.5% 내외의 수수료
가 부과됨에 따라 예금자들은 **직접 주화 인출을 요구하기 보다
시장에서 예금을 매매**
 - 예금자가 민간 금융업자 앞으로 예금을 계좌이체하면, 금융업자가 예금자에게
이에 상당하는 주화를 지급
 - 동 매매과정에서 주화대비 **뱅크플로린의 프리미엄을 의미하는
아지오(market agio 또는 aggio)가 형성**
 - 예금을 주화로 인출하려는 수요가 증가(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은
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낮아져 아지오는 하락(상승)하는데, 이는
오늘날 **변동환율제도의 원리와 동일**

연도별 아지오 추이(1653~1780)



자료 : Quinn and Roberds(2012)

아지오와 은행예금의 매매



자료 : Quinn and Roberds (2010)

□ 1683년부터는 예금주도 **주화인출권(receipt)**이 있어야 주화인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 인출권 시장이 형성

— 주화인출권 제시가 예금을 주화로 인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

□ 인출권 없이는 주화 요구가 불가능했지만 계좌이체방식의 **거액 지급결제**는 여전히 가능했다는 점에서 암스테르담예금은 **불태환 지급수단** 즉, **법정화폐의 성격**을 갖게 됨

— 이로써 암스테르담은행은 직접 발권기능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불태환 지급수단을 관리**하고 **거액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였다는 면에서 **오늘날의 중앙은행과 매우 유사한 위상**을 갖춤

3 암스테르담은행의 쇠퇴 및 영향

(1) 쇠퇴

□ 1760년 이후 암스테르담은행 지급결제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였던 **상업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네덜란드 금융시스템** 및 암스테르담은행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

- 1763년 지역내 대형은행(De Neufville)이 파산하고 뒤이어 다른 상업은행들의 연쇄 파산 및 금융불안이 발생
- 특히 제4차 영국-네덜란드 전쟁(1780-1784) 패전 이후 암스테르담은행의 쇠락이 가속화
 - 암스테르담은행은 **전쟁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동인도회사와 시정부 등에 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이 크게 악화**
 - 초기 암스테르담은행은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동인도회사와 암스테르담 시 정부 등에 대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실시
 - 패전 이후 암스테르담은행 예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금, 은 등의 자산(metal)이 70% 감소(1780년: 2천만 벵크플로린 → 1784년: 6백만 벵크플로린)
- 자산 부실화, 주화인출 요구 증가로 준비자산이 급감함에 따라 **시장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여 아지오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결국 암스테르담은행은 **1819년 파산**
 - 아지오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은행예금의 가치가 하락하여 주화를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해짐을 의미

(2) 영 향

- 암스테르담은행의 실패와 함께 **금융 중심지로서 네덜란드의 지위도 쇠퇴**하였으나 암스테르담은행은 이후 **영란은행 등 보다 현대화된 중앙은행의 형성**과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 상인들의 **거액자금 결제를 중심**으로 **계좌기반(ledger-money)**으로 운영된 암스테르담은행과 달리 영란은행, 스톡홀름은행[■] 등은 **지폐 형태의 은행권(bearer banknote)**을 발행
 - 스톡홀름은행은 당시 통용되던 구리화폐를 대신하여 유럽 최초로 지폐 형태의 은행권을 발행(1661)하였으나 과도한 대출 및 화폐발행으로 1664년 파산
- 영국은 **암스테르담은행을 참고하여 1694년 영란은행을 설립**하였으며 **런던 주변지역(반경 65마일)에서 영업독점권을 가진 은행**으로 성장하면서 신중한 자금운용 등을 통해 높은 신뢰를 구축
 - 영란은행은 암스테르담은행과 달리 **민영은행[■]으로서 정부의 전쟁자금 조달 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까지 파산하지 않고 이어져 오면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중앙은행**으로 발전
 - 영란은행은 합자회사(joint-stock bank) 형태로 설립되어 영국내 금융가, 암스테르담의 투자자, 신교도, 유대인 등 다양한 투자자가 소유

암스테르담은행과 영란은행 비교

	암스테르담은행	초기 영란은행
존속기간	1609~1819	1694~현재
설립목적	화폐시스템 안정 및 안정적 환어음결제 시스템 구축	정부 전쟁자금 조달
이윤창출	X	O
국고대리	X	O
소유 및 지배구조	-암스테르담시 소유 -시장(burgomaster)이 지휘, 감독권을 가짐	-투자자(stakeholder) 소유, 합자회사(joint-stock bank) 형태 -투자자가 총재 등 주요 임원을 선출
영업상 특권	환어음결제 독점	런던주변지역(반경 65마일) 은행권발행 독점(19세기초)
대출여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동인도회사 등)	정부 및 일반 대출
지폐발행	X	O

V**결론 및 시사점**

- 근대적 은행업은 환전업자들이 주화를 예치받고 계좌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출현
 - 고대부터 활동해 온 대부업자(usurer)들과 달리 환전업자 또는 초기 은행들은 예금을 통해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출 및 투자도 부수업무로 파생되어 취급하기 시작
- 초기 중앙은행은 민간은행들이 예금을 대출에 활용하면서 은행 파산 및 지급결제시스템 불안이 초래되었던 경험을 교훈 삼아 지급결제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예금을 대출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공공은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해 설립
 -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는 대출 및 투자실패로 민간은행의 파산이 이어짐에 따라 지급결제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은행인 리알토은행(Banco di Rialto)을 설립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암스테르담은행을 설립하여 화폐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일정 금액 이상의 결제를 동 은행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의무화
- 결론적으로 중앙은행 제도는 중세 이후 유럽에서 근대적인 시장경제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금융 및 지급결제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
 - 현존하는 최고(最古) 은행중 하나인 영란은행은 이윤을 추구하고 개인이 소유했다는 점에서 암스테르담은행에 비해 일반 상업은행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건전한 자산운용, 법정화폐 발행권한 획득 등을 통해 오늘날 중앙은행의 효시로 살아남게 됨

<참고문헌>

- 론도 캐머런·래리 닐(2007), 『간결한 세계 경제사』, E*Public.
- 애덤 스미스(2007), 『국부론』, 비봉출판사.
- 유아사 다케오(2005), 『세계 5대 제국 흥망의 역사』, 일빛.
- 정재웅(2016), “금융시장의 발전사와 주택금융시장의 형성”, 『주택금융월보』 제138호, pp. 2-25.
- 캐서린 이글턴·조너선 윌리엄스(2008), 『Money 화폐의 역사』, 말글빛냄.
- Broz, J. L., & Grossman, R. S. (2004). “Paying for privilege: the political economy of Bank of England charters, 1694 - 1844”.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41(1), 48-72.
- Goodman, H. (2009). “The Formation of the Bank of England: A response to Changing Political and Economic Climate, 1694,” *Penn History Review*, 17(1), 2.
- Hoppe, Hans-Hermann (1994), “How is Fiat Money Possible? - or, The Devolution of Money and Credit,”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Vol. 7(2), pp. 49-74.
- Howells, P. (2013). “The US Fed and the Bank of England: Ownership, Structure, and “Indepen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2(3), 44-62.
- Kindleberger, Charles P.(1993), *A Financial History of Wester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ohn, Meir (1999), “Early Deposit Banking,” Dartmouth College,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No. 99-03.
- _____ (2001), “Payments and the Development of Finance in Pre-industrial Europe,” Dartmouth College Econ. Working Paper, No. 01-15.
- McAndrews, James, and William Roberds (1999), “Payment Intermediation and the Origins of Banking,” FRB of New York Staff Report, No. 85.
- Neal, Larry (2000), “How it all began: The monetary and financial architecture of Europe during the first global capital markets, 1648 - 1815,” *Financial History Review*, Vol. 7(2), pp. 117-140.

Quinn, Stephen (2005), “The Big Problem of Large Bills: The Bank of Amsterdam and the Origins of Central Banking,”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Working Paper, No. 2005-16.

Quinn, Stephen, and William Roberds (2006), “An Economic Explanation of the Early Bank of Amsterdam, Debasement, Bills of Exchange, and the Emergence of the First Central Bank,”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Working Paper, No. 2006-13.

_____ (2007), “The Bank of Amsterdam and the Leap to Central Bank Mone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7(2), pp. 262-265.

_____ (2010), “How Amsterdam got Fiat money,”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Working Paper, No. 2010-17.

_____ (2012), “The Bank of Amsterdam through the Lens of Monetary Competition,”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Working Paper, No. 2012-14.

_____ (2014), “Death of a Reserve Currency,”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Working Paper, No. 2014-17.

Roberds, William, and François R. Velde (2016), “The Descent of Central Banks (1400 - 1815),” *Central Banks at Crossroads*, pp. 18-61, Cambridge University Press.

Spufford, Peter (1989), *Money and its Use in Medieval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sher, Abbott Payson (1943), *The Early History of Deposit Banking in Mediterranean Europe*, Vol. 1, Harvard University Press.

금융결제국 발간자료 목록

■ 정기간행물 (연간)

- 지급결제보고서
-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통계
- 지급결제정보
- 지급결제제도연구회 연구발표 자료집
-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 조사연구 및 업무참고자료

- 1996.11 주요국(G-10)의 지급결제제도
- 1996.12 각국의 전자화폐 개발현황

- 1997.12 실시간총액결제(RTGS)시스템의 이해

- 1998. 2 지급결제제도
- 1998.10 전자화폐에 관한 보고서
- 1998.12 주요선진국 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 운영현황 및 민간결제기구와의 관계

- 1999.12 주요국 소액지급수단 이용현황 비교

- 2000. 5 외환결제리스크의 현황과 감축전략
- 2000. 6 Payment Systems in Korea
- 2000.12 BIS 은행감독위원회의 외환결제리스크 관리 감독지침

- 2001. 1 지급결제환경의 변화와 중앙은행의 대응방안
- 2001. 1 호주의 지급결제제도
- 2001.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이해

- 2002. 2 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관련 규정집
- 2002. 2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
- 2002. 3 각국의 전자화폐 개발현황
- 2002. 5 지급결제제도관련 용어집
- 2002. 6 전자금융: 전망과 과제
- 2002. 9 미연준의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관리정책
- 2002. 9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제도 현황
- 2002. 9 한국은행 예금 및 환업무 해설
- 2002.11 국내금융기관의 정보화투자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2002.12 지급결제분야에서 일본은행의 역할

- 2003. 7 국내 금융부문의 영업방법(BM)특허 동향 및 시사점
- 2003. 9 국내전자화폐 및 전자상거래와 금융정책
- 2003.12 한국은행 대출업무 해설원고

- 2004. 2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
- 2004. 3 주요국의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한 법률현황
- 2004. 3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관련 규정집
- 2004. 3 전자금융총람
- 2004. 6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의 역할(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 2004.12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 2005. 3 주요국 총액결제시스템의 유동성 절약방식 비교분석
- 2005. 4 우리나라의 외환동시결제제도
- 2005. 6 지급결제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 2005. 6 영란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보고서
- 2005. 9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 2005.10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 2005.11 Payment Systems in Korea
- 2005.11 거액결제시스템의 발전동향 및 시사점
- 2005.12 「한국은행 예금·환업무 해설」
- 2005.12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의 유형별 관리대책과 정책과제

- 2006. 5 지급결제제도의 미래와 결제리스크 관리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 2006. 6 싱가포르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 2006. 7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현황
- 2006. 8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 2006. 8 주요국의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운영 현황
- 2006. 8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집
- 2006. 9 캐나다의 「지급 청산 및 결제법」
- 2006.10 노르웨이의 「지급결제시스템법」
- 2006.11 미국의 선불카드 규제현황 및 시사점
- 2006.12 홍콩의 「청산결제시스템법」

- 2007. 1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등에 관한 법률
- 2007. 6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확대와 정책과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 2007. 9 지급카드 수수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
- 2007. 9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집

- 2008. 1 ECB의 카드결제시스템 감시기준
- 2008. 2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2008. 2 지급결제부문에서의 경쟁정책 운용 현황
- 2008. 2 지급결제의 이해
- 2008. 4 국내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현황
- 2008. 5 유럽의 지급결제제도 대변혁과 향후 전망
- 2008. 6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 의미와 과제
- 2008. 7 유가증권의 매매 및 결제 메커니즘
- 2008. 7 영국·프랑스의 증권결제 메카니즘
- 2008. 8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 산업의 국제 동향과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
- 2008. 8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의 주요내용
- 2008.11 지급서비스의 기본개념과 취급요건
- 2008.12 국내외 금융EDI 이용 현황 및 시사점

- 2009. 1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 2009. 5 전자금융총람
- 2009. 6 지급결제제도 관련 규정집
- 2009. 8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제도(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 2009. 9 주요국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 2009.12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2009년 개정판)

- 2010. 6 호주의 소액결제시스템 개편 동향
- 2010. 8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통계
- 2010. 9 지급결제제도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보고서)
- 2010. 9 장외파생상품 CCP에 대한 「CCP 권고안」 적용 지침
- 2010. 9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정보저장소 관련 고려사항
- 2010.10 Repo 청산결제제도의 강화
- 2010.10 Payment Systems in Korea
- 2010.11 미국 카드시장 규제와 주요 내용과 카드산업의 대응 현황
- 2010.12 금융권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

- 2011. 1 영국·캐나다·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및 시사점
- 2011. 2 국가간 개인송금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과제
- 2011. 4 유엔국제전자계약협약(UN CUECIC) 수용을 위한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시사점
- 2011. 4 주요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라 구축 동향과 시사점
- 2011. 4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 2011. 6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사례

- 2012. 6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 2012. 7 주요국 RP시장 결제시스템 개선의 주요 내용
- 2012. 9 유동성 공급충격이 콜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2012.10 전자금융 조성자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 2012.12 증권사의 퇴직연금 취급에 따른 잠재리스크 분석
- 2012.12 Cashless society 진전 현황 및 정책과제

- 2013. 4 RP시장 결제리스크와 CCP 청산효과 분석
- 2013. 5 모바일 지급결제 발전 현황 및 주요 이슈
- 2013. 5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
- 2013. 9 국내 RP결제리스크 요인 분석 및 시사점
- 2013.11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 2013.12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 2014. 3 TR 국제논의 동향 및 과제
- 2014. 6 CMS 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
- 2014. 6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현황과 향후 과제
- 2014. 6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 운영현황 및 개편동향
- 2014. 7 고객 거액자금이체의 한은금융망 처리시 결제패턴 변화 분석
- 2014. 8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
- 2014.10 전자결제 인증체계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
- 2014.11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 2014.12 ASEAN+3 역내 국제 증권결제인프라 구축 논의 현황 및 과제
- 2014.12 국내 금리스왑 CCP의 리스크 관리제도: 개시증거금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중심으로

- 2015. 1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 2015. 4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요인과 과제
- 2015. 6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당행 업무에 대한 시사점
- 2015.11 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헤지운용 현황 및 시사점
- 2015.12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 2016. 1 2015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 2016. 1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 2016. 1 2015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 2016. 1 한국은행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
- 2016. 2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
- 2016. 6 최근 국제 논의동향을 반영한 국내 FMI의 사이버복원력 강화 방안
- 2016. 7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

- 2016. 8 바이오인증기술 최신 동향 및 정책과제
- 2016. 9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2016.12 2016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 2016.12 2016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7. 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 2017. 7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 결제역의 역할

발행인 | 이 주 열

편집인 | 차 현 진

발행처 |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www.bok.or.kr

발행일 | 2017년 7월 27일

제 작 | (주)동화인쇄공사

ISBN | 979-11-5538-351-3

Copyright ©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